

“질적 성장 고민하며 답 찾겠다”

취임 100일 맞은 권오봉 여수시장

-민선7기 취임 100일 소감은.
 ▲취임 이후 새로운 여수를 준비하며 숨 가쁘게 달려 왔다. 여수는 지금 지속적인 개발과 관광도시의 급부상으로 좋은 점과 그 이면의 고통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와 더불어 청년일자리 문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박람회장 사후활용 등 굵직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고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위해 노력중이다.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는.
 ▲먼저 민선7기 출범 이후, 여수 사건 70주년을 맞아 오랜 기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각계각층이 참여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모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조금이나마 역사의 아픔을 씻고 지역 통합의 큰 전진을 이룬 점을 들 수 있다.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격의 없이 대화하는 ‘사랑방 좌담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2020년까지 5,700억 원이 투자되는 미래 친환경 사업인 이차전지 원료 양극재 제조공장의 설립 협약도 맺었다.

하는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해 민선7기 시정원칙인 시민중심 구현에 노력하겠다.

-시민중심 시대를 표방, 소통행정 방안은.
 ▲소통은 잘 듣는 것, 즉 경청이다. 사랑방좌담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장소와 형식, 주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으로 찾아가서 불편과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한 시책이다. 사랑방 좌담회 외에, 시민 500명 이상이 찬성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시민청원제도’도 우시시 대표적인 소통시책이다. 소통을 통해 시민 다수가 공감

-여수시의 시급한 현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수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울촌2산단도 조기에 조성토록해 미래 신성장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다. 경도·화양지구 조기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에도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취임때 시민 한분 한분의 소망을 모아 여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선 7기 시민중심시대가 순항하고 시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정에 늘 함께 해주시 바란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수확철 농촌 불법체류 외국인 잠식

일손 부족에 농민들 ‘울며 겨자먹기’ 고용 각종부작용 속출 지자체 “권한부재” 뒷짐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전남 농촌지역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잠식되고 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상이 외국인 노동자들 밖에 없어 농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을 선택하고 있다. 11일 보성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농업분야가 일명 ‘3D업종’으로 분류되면서 국내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농사를 지을만 한 젊은 인력이 없는 데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공근로도 특정 지역에 인력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전남지역 곳곳의 농가들은 수확 현장이나 공사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자연스럽게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저 인건비 마저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도 덩달아 올라 남

자의 경우 12만원, 여자 8만원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농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한 그 이후다. 농촌지역에 외국인 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반해 관리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영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지도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함에도 농가 인력수급의 중개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소개소 마다 소개료와 숙식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수수료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정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도 일체의 세부처

리를 할 수 없어 사용주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공사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김 모씨(69)는 “국익에 반하는 일인줄 알고 있지만 농촌지역에 고용 할 만한 일용직 근로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수확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김 모씨(61·겸백면)는 “농산물을 적기에 추수하기 위해 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해 급여뿐만 아니라 숙식비까지 지원하다보니 내국인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여수시 해양공원에서 오는 13일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 모습이 생생히 재현된다. /여수시 제공

여수서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 재현된다

13일 해양공원...시립국악단원·안무가 등 100여명 연출

충무공이순신장군이 이끄는 전라좌수영의 출정 모습이 여수해양공원에서 생생하게 재현된다. 여수시는 오는 13일 여수해양공원에서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 재현 행사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수군출정식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라좌수영 출정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수시문화원이 주관하고 여수시가 후원하는 출정식의 주제는 ‘전라좌수영 후예들의 흥’이다. 출정식은 여수시립국악단원과 100여 명의 안무가가 이순신 장군과 수군,

취타대 역할을 맡아 연출한다. 특히 출정식은 문헌기록 등 역사적 고증을 거쳐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는 시립국악단의 취타대 연주뿐 아니라 승전무, 강강술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수군출정식은 이달 27일(해양공원)과 내달 3일(이순신공원)에도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정찬주 작가의 ‘단군의 아들’ 목사 류주현 문학상 선정

보성군 홈페이지에 연재한 정찬주 작가의 소설 ‘단군의 아들’이 제14회 목사 류주현 문학상을 수상했다. ‘단군의 아들’은 2016년 홍암 나철 선생 100주년을 맞아 35회로 나누어 연재됐다.



목사 류주현 문학상은 조선총독부, 대원군 등의 작품으로 대하소설의 경지를 개척한 목사 류주현(1921-1982) 선생의 문학적 성취와 업적을 높이고 대한민국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수상작 ‘단군의 아들’은 독립운동의 대부이자 단군사상의 실천자였던 보성출신 홍암 나철 선생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장편역사소설로 발표 후 평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여주시 여성회관에서 열린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곡성 지방자치경쟁력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이 2018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KLCI) 조사 결과, 전국 82개 군단위 중 종합경쟁력 10위권의 상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KLCI 평가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 지방자치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해오고 있다. 총 43개영역 94개의 객관적 지표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기초 군단위 경영자원부 4위, 경영활동부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아 처음으로 10권 내에 진입

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민선 6, 7기 들어 군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과 공동체 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 노력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 경쟁력 상승은 의미 깊은 결과”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7기 들어 본격 추진 중인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면 군민행복지수 1위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송귀군 군수 “새로운 미래 동력 마련”

고흥 주요업무 보고회

고흥군은 송귀군 군수 주재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지난 8일부터 3일간 간부 및 담당급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내년도 추진할 공약사항 및 신규시책, 계속사업, 기존사업 등

437건의 성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해 실행계획과 예산변경 등 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군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민선 7기가 그동안 담금질해온 조직력과 공직자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이득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동력으로 삼고자, 그 어느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내 사랑 고흥

기금 100억 조성 ▲귀향 귀촌 고흥 1,000호 달성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고흥 귀농 귀촌 학교 조성 등이 보고됐다. 농·수·축산분야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 ▲권역별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개설 ▲고흥한우 우수형통 생산기반 조성 등이, 주민복지분야는 ▲고흥 건강복지타운 건립 ▲치매안심센터 건립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이 논의됐다. /동부취재본부=진종연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분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클릭! 고향 소식



곡성중 교원 힐링테라피 연수

곡성중학교는 최근 학교 도서관에서 교직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찾아가는 교원 힐링테라피 연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곡성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심신 힐링을 통해 교원의 삶의 질 향상 기회 제공과 건강한 학교문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번 연수로 관내 중등학교 교원간 화합과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지도의 역량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보성 ‘찾아가는 경로식당 나눔 밥차’

보성군은 최근 조성면 평촌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경로식당 나눔 밥차’를 운영 관내 어르신 35명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경로식당 사랑의 나눔 밥차’ 사업은 2016년 지역 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밥차 운영에 관한 사업비는 보성군에서 지원하고 보성군노인복지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시민 토론회

광양시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최근 월드컵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의 역할과 광양시 보육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학부모, 보육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여수 한려동, 긴급구호·주거비 지원

여수시 한려동이 최근 행복나눔 행사를 열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긴급구호비 등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의체는 이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정 6세대에 긴급구호비로 50만 원씩을, 4세대에는 각 50만 원 상당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집수리를 지원받은 한 주민은 “도배와 장판교체로 새 집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